



‘한국인 강세’ 소니오픈 김주형 “올해는 나요 나”

PGA 소니오픈 9일 개막...이경훈·김시우·안병훈도 출전
2008년 최경주·2023년 김시우 우승...지난해 안병훈 2위

김주형(사진)이 9일 개막하는 소니오픈을 통해 2025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경기를 치른다. 총상금 870만달러가 걸린 소니오픈은 9일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래이 컨트리클럽(파70·7044야드)에서 열린다. 6일 끝난 더 센트리에 이어 2025시즌 두 번째 대회지만 소니오픈에서 2025시즌을 시작하는 선수들이 꽤 된다. 더 센트리는 지난 시즌 투어 우승자 또는 페덱스 컵 랭킹 50위 이내 든 선수들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출전 선수가 59명에 불과했다. 소니오픈은 144명이 나오는 새해 첫 ‘풀 필드’(Full-Field) 대회다. 한국 선수로는 김주형과 이경훈이 소니오픈에 나서 2025시즌을 시작하고, 더 센트리에 출전했던 김시우와 안병훈도 나온다. 더 센트리에선 단독 3위로 선전한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는 불참한다. 소니오픈은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꽤 깊은 편이다. 2008년 최경주가 우승했고, 2023년에는 김시우

가 정상에 올랐다. 또 지난해 대회에서 안병훈이 연장전 끝에 준우승했으며 2021년에는 교포 선수 케빈 나(미국)가 1위를 차지한 대회다. 올해 김시우는 2년 만에 패권 탈환을 노리고, 안병훈에게 지난해 연장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낼 기회인 셈이다. 안병훈은 지난해 이 대회 연장에서 약 1.5m 버디 퍼트를 놓치면서 12m 장거리 버디를 잡은 그레이슨 머리(미국)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2023년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투어 3승째를 따낸 이후 우승 소식이 없는 김주형도 새해 첫 대회에서 정상에 도전한다. 김주형은 지난해 12월 이벤트 대회로 열린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과 그랜트 스톤 인비테이션에서 준우승하며 2025시즌 개막을 벌려 왔다. 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더 센트리에선 PGA 투어 역대 최다 언더파 기록인 35언더파로 우승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는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세계 랭킹 5위로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마쓰야마는 2022년 소니오픈 챔피언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날다...막다 7일(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유니티드 센터에서 열린 NBA 시카고 볼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에서 시카고 볼스의 잭 라빈(8번)이 샌안토니오의 데빈 바셀(24번)의 수비를 뚫고 덩크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군필’ 수비수 민준영 영입

“K리그1 승격 기여하겠다” 각오 전남드래곤즈가 ‘군필’ 수비수 민준영(29·사진)으로 승리를 지킨다. 김현석 감독이 지휘하는 전남이 대전하나시티즌에서 수비수 민준영을 영입했다. 전남고-동국대 출신의 민준영은 2017년 성남 FC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 뒤 2018년 경남FC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어 2019년 아산무궁화를 거쳐 2020년 안산그리너스로 이적한 그는 새 팀에서 방동의 계기를 마련했다. 민준영은 안산에서의 첫 시즌에 11경기를 소화했고, 주전으로 도약한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대전에 합류했다. 대전에서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는 군문제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군국체육부대 교배를 마신 그는 현역 입대를 선택하면서 잠시 그라운드를 떠났다. ‘예비역’으로 돌아온 그는 전남에서 프로무대 복귀를 노리게 된다. 민준영은 “개인 운동을 통해 최대한 몸컨디션을 끌어올렸지만 프로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팀에 빨리 적응해야 할 것 같다”며 “대전에 있을 때 승격을 경험했다. 전남에서도 그 기분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 전남의 K리그1 승격에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 ‘U-23 대표’ 출신 공격수 박정인 영입

위치 선정·날카로운 침투 장점 광주FC가 서울이랜드FC 출신 공격수 박정인(24·사진)을 영입했다. 광주는 7일 “서울이랜드FC 출신 공격수 박정인을 영입하며 공격진에 무게감을 더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고 출신으로 각종 대회에서 팀 우승과 득점왕을 휩쓸며 초고교급 유망주로 주목받은 박정인은 2019년 울산HD에 입단해 프로로 데뷔했다. 이후 2021년 K리그2 부산 아이파크로 이적한 박정인은 첫 해 29경기 8골 3도움을 포함해, 두 시즌 반 동안 64경기 16골 4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다. 신장 178cm, 체중 70kg의 탄탄한 체격을 지닌 박정



인은 중앙 공격수로서 타고난 위치선정과 날카로운 침투가 장점이다. 특히 박정인은 어느 위치에서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인은 “광주 경기를 보며 이정호 감독에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더 큰 선수가 되겠다”며 “팬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팀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FC “새 유니폼 입고 ‘찬란한 순간’ 맞자”

‘The Shine Gwangju’ 공개 ‘빛’ 컨셉으로 도시 정체성 강조

광주FC가 2025시즌 유니폼 ‘The Shine Gwangju’를 공개했다. 광주가 새로운 킷 파트너 골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한 ‘The Shine Gwangju’는 광주시의 상징인 ‘빛’을 컨셉으로 해 도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찬란한 순간’을 팬과 함께 맞이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광주는 반짝이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 구단 엠블럼 하단에 ‘5개 별빛’을 담았다. ‘5개 별빛’은 열전사 기법으로 녹여내 입체감을 살렸다. 유니폼 원단의 색상이 이염되지 않도록 엠블럼 로고는 실리콘 재질로 제작하는 등 전체적인 유니폼 품질을 높였다. 홈 필드 유니폼은 구단을 상징하는 옐로우 컬러에 버건디 컬러를 포인트로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어웨이 필드 유니폼은 상하의를 화이트 컬러로 통일해 깔끔함을 표현했다. 골키퍼 유니폼은 각각 그레이 컬러와 민트 컬러로 제작했다. 유니폼은 2월 초 구단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골스튜디오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광주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ACLE) 신규 유니폼은 1월 말 공개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선수들이 2025시즌 유니폼 ‘The Shine Gwangju’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경민(왼쪽부터), 안영규, 이민기, 이정호 감독, 변준수, 노희동. <광주FC 제공>